경희대학교 2012학년도 신입생

수시 2차 모집 논술고사 문제지(사회계)

[11월 13일(일) 오후]

전형유형 (　　) 지원학부(과) (　　) 수험번호 | | | | | | | | | 성 명 (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2.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3. 답안 작성과 정정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시오.
4.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답안지에 특별한 표시를 한 경우, 지정된 분량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점 또는 0점 처리합니다.(예: 감사합니다 등)
5. 답안 정정 시에는 원고지 교정법에 따라야 하고 수정액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0점 또는 감점 처리합니다.
6.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각 논제별로 요구한 분량 이내로 논술하시오.

[가]

공공성은 헤게모니와 당파성 너머에 있다. 굳이 현실 정치의 맥락을 따라 말한다면 헤게모니 너머의 헤게모니, 당파성 너머의 당파성에 닿은 문제다. 공공성은, 자기 이해 자체를 성찰적으로 대상화하고 결국에는 자기 이해를 넘어서는 시야를 획득하지 못하면 결코 도달할 수 없다. 그것은 다원주의나 계급주의의 시각 너머에 있다. 다원적 이해의 계량과 절충만으로는 공공성에 도달할 수 없다. 특정 계급의 이익이 공공성을 저절로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다. 민족주의나 국익주의와도 무관하다. 칸트가 강조한 것처럼 세계시민사회나 완전한 시민적 정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공공성의 근본이다.

루소가 볼 때, "공공의지(public will)는 오직 인민이 특정한 이해(利害) 때문에 오도되지 않는 조건에서만 옳을 수 있다. 일부 약삭빠른 사람들이 영향력과 웅변술을 사용해서 특정한 이해를 일반의지로 바꾸곤 하기 때문이다. 공공심의(public deliberation)는 일반의지와 다를 것이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사례가 내 주장을 반증할 수는 없다. 아테네의 정치는 실제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학자들과 웅변가들이 지배하던 전제적 귀족정(tyrannical aristocracy)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나]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아무리 둔해도 조금은 문리가 트이나 보다. 간혹 몇 주 혹은 몇 달 뒤 신문에 날 기사가 미리 보이니 말이다.

넉 달째 접어든 전국적인 '반(反)월가(Wall Street)'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전국에 생중계된 대국민 담화에서 전국 50개 주에서 추첨을 통해 선발된 시민들로 의회를 구성, 연방 하원을 대체하는 정치 개혁안을 민심 수습책으로 제시했다. 오바마는 "미국이 당면한 위기의 본질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강조하고, "의회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위기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월가의 탐욕을 규제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의회가 당리당략과 이익집단에 사로잡혀 '무능(doing-nothing) 국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대의제를 부정하는 초헌법적이고, 위헌적인 제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공화당 의원은 "대통령은 의회를 탓하기 전에 자신의 정치력 부족을 탓해야 한다"며 "시위대를 홍위병으로 앞세워 혁명을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시위대는 "당파주의와 금권정치를 극복하지 못하면 월가의 개혁과 불평등 해소는 불가능하다"며 정치 개혁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미 하원은 부유한 백인 남성이 의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의원의 40% 이상이 변호사 출신이다. 월가는 최근 10년간 약 50억 달러를 정치권에 후원금으로 제공했다.

미국의 시민운동가인 어니스트 칼렌바크와 마이클 필립스가 쓴 『추첨 민주주의』를 읽다 깜빡 졸았다. 내가 꿈을 꾼 것인지 두 사람이 꿈을 꾼 것인지 헷갈린다.

[다]

This essay suggests to constitutionalize the Citizen Assembly. The crucial difference that distinguishes Citizen Assembly from the National Assembly is the principle of the selection of its members.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selected by election, however the members of Citizen Assembly are selected by stratified random sampling. The Citizen Assembly is convened to deliberate specific public issues which causes sharp social conflicts and disagreements. The President, the National Assembly and people can convene the Citizen Assembly according to the specified legal process. The decisions of the deliberation of the Citizen Assembly have the status of legal codes, and thus can be objects of judicial review. The Citizen Assembly can attenuate persistent, increasing conflicts and disagreements between civil society and the state upon public policies and thus strengthen the legitimacy of the state. The idea of the Citizen Assembly is developed from the expanded theories of democracy, especially theories of deliberative democracy.

* stratified random sampling: 층화 무작위 추출 방식

<뒷면에 계속>

[라]
정부는 국민의 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2000년 7월 1일 의약 분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며 당시 우리 사회의 커다란 사회적 쟁점이 되었다. 가장 큰 쟁점은 약사의 대체 조제 허용 문제로, 이에 대한 각 집단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약사측 의견: 현실적으로 약국이 모든 의약품을 갖추고 있을 수는 없다.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없을 경우 같은 성분을 가진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의사측 의견: 약사의 대체 조제를 허용하는 것은 약사의 진료 행위를 허용하는 것과 같다. 약사의 대체 조제를 확실히 규제해야 의약 분업의 근본 취지인 약품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확실히 마련한 후에 의약 분업을 실시해야 한다.
- 시민 단체 의견: 대체 조제를 허용한 것은 국민의 불편을 덜어보자는 것이지, 약사의 진료행위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정부도 3개월 후 재평가하여 개선을 하겠다고 하고, 시민 단체도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벌이겠다.

[마]
경부와 호남 고속 철도가 갈라지는 역사는 천안아산, 오송, 대전 등 3곳 중 어디가 될까 모두의 관심이 고조됐다. 후보지로 거론됐던 천안아산, 오송, 대전 등 3곳은 모두 경부 고속 철도의 중부권 역사가 있는 곳이다. 이들 중 어느 곳이 분기점이 되든지 고속 철도 시대의 새로운 교통 요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리고 이 분기점 일대는 교통 조건이 좋아져 지역 개발에 크게 유리해지며, 지역의 땅값도 상승하게 된다.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호남지방 주민들도 천안아산역이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천안아산을 지날 때 호남지방으로 가는 거리가 가장 짧기 때문이다. 충청북도 주민들은 분기점이 충청북도 오송을 지나가기를 바랐다. 반면 대전 시민들은 인구가 가장 많은 대전을 지나야한다고 주장했다.

<논제 I>
제시문 [가], [나], [다]의 내용을 각각 요약하고 제시문 전체의 주요 논지를 제시하시오. [501~600자 이내] (35점)

<논제 II>
제시문 [가], [나], [다]의 공통된 논지를 근거로 제시문 [라], [마]의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술하시오.
[501~600자 이내] (35점)

<논제 III>
A시에서 도시 재개발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재개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무효표는 없었고 재개발에 찬성한 주민은 50%였으며, 이들 중 재개발 예정지 주민이 70%였고, 반대한 사람 중 재개발 예정지 주민은 10%였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재개발 예정지 주민을 1,000명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재개발 예정지 주민 중 찬성하는 사람은 몇 명인지를 풀이하시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를 제시문 [가]와 [나]에 근거하여 제시하시오. [301~400자 이내] (30점)

<끝>